"훌륭한 후배 의사들 양성에 힘써 주길"

조선대 의대 1회 동기회 29명

졸업 50주년 1억5000만원 기부 1967년 첫 입학생들 의기투합

"1967년 의예과 1회로 들어왔지요. 그 세월동안 모교인 조선대가 눈부신 발전을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제1회 졸업생들 이 후배들을 위해 발전기금 1억5000여만 원을 기부해 눈길을 끈다.

21일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의과대학 (학장 정중화)은 지난 18일 1973년 졸업 한 동문들을 초청, 의과대학 50주년 기념 관에서 '의과대학 제1회 졸업 50주년 기 념 모교 방문 및 발전기금 기부식'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1회 졸업동기회(회장 류재운) 회원 29명이 "의학교육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약 1억5300만원을 기부 했다.

기부식에는 조선대학교 민영돈 총장과 의대 제1회 졸업 동기회 류재운 회장 등 회원 17명, 정중화 의과대학장, 김경종 조 선대학교병원장, 박건 의과대학 부학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졸업 50주년을 회고하는 사진과 영상, 의과대학의 발전 현황 보고, 기부금



조선대 의과대학은 지난 18일 의과대학 50주년 기념관에서 '의과대학 제1회 졸업 50 주년 기념 모교 방문 및 발전기금 기부식' 행사를 열었다. 조선대 제공

전달, 감사패 증정, 조선대 캠퍼스 및 조 선대학교병원 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류재운 졸업동기회 회장은 "1966년 설 립, 1967년 의예과 1회 신입생으로 출발 한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제1회 동기들은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담대한 배 움의 열정을 통해 의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며 "다시 찾은 모교의 눈부신 성장 과 발전은 우리 동기회의 자긍심이 된다. 앞으로도 훌륭한 의사양성을 위해 힘써달 라"고 말했다.

민 총장은 "호남 사학 교육의 중추적 역 할을 수행하고 있는 조선대학교는 존경하

는 선배님들의 뜻을 이어 받아 훌륭한 후 학 양성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중화의과대학장은 "후학들의 성장을 위해 등불을 비춰주신 선배님들의 소중한 경험담은 오늘 함께한 학생대표에게도 큰 가르침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우리 의과 대학 역사의 증인으로 오래오래 건강히 남아 주시길 바란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

한편 의과대학 제1회 졸업동기회의 발 전기금은 의사국가시험 대비 실습 교육비 와 장학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노병하기자 byeongha.no@jnilbo.com

전남대 김태호 교수, 대통령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전남대학교 해양생 산관리학과 김태호(사 진) 교수가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 원회(이하 농어업위) 민간위원에 위촉됐다.

21일 전남대에 따르면 농어업위는 농 어업 ·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획 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장 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당연직 위원과 농어업인단체의 대표와 관련 분야 전문가 등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023년 6월 19일부터 2025년 6월 18일까지 2년

김 교수는 스마트 양식 관련 국내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해양수산부 대규모 국 가 R&D 사업인 '스마트수산양식연구센 터'와 '스마트 유수식 양식 시스템 개발'

과제의 책임을 맡아 스마트 양식 전문 인 력 양성과 핵심 기술 개발 연구를 왕성하 게 수행하고 있다. 정부 부처의 자문위원 으로도 참여하며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쳐

김 교수는 전남대 수산해양대학장, 한국 수산과학회 부회장, 국정과제평가 전문위 원, 법제처 국민법제관, 국립수산과학원수 산연구관을 역임했다. 현재 대통령직속 국 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 농수산물 품질관리심의회 위원, 전남대 스마트수산 양식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노병하기자

2023 '전남 종가 문화 의미·가치' 심포지엄 성료



전남도와 한국학호남진흥원이 공동 주 최하고 (사)전남종가회가 주관한 2023 제7회 전남 종가 심포지엄이 종손·종부 등 전남 종가 회원과 학자, 일반 시민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사진)

지난 2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

의실에서 열린 이번 종가 심포지엄은 남 도 종가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고 지역 종가 문화 계승 발전의 방향성을 정립는 한편 전남 종가의 문화적 다양성과 독특 성을 찾아 유용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심포지엄에 특별 초청된 한경구 유네스 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은 '인류문화유산

으로서 종가 문화의 의미와 가치'라는 주 제 발표를 통해 "종가문화의 유네스코 등 재는 간단히 접근할 사항이 아니며 전체 인류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성의 문제 가 중요하다"고 역설해 종가 또는 종가문 화의 유네스코등재를 포함한 세계화에 대 한 진지한 성찰의 기회를 갖게 했다.

이재태 전남도의원은 '전남 종가 역사 문화 진흥조례 제정의 의미와 정책 방향' 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전남종가 활성화 를 위한 제도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 다.

퇴계 종가 차 종손인 이치억 공주대 교 수는 '종가 문화 계승의 구조와 현상 및 과 제'라는 주제로 종가 계승의 어려움을 퇴 계 종가 가문 차기 종손이 될 자신이 처한 실제 상황과 경험을 생생하게 발표, 종손 과 종부 등 참석한 종가 회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최동환 기자

전화 (062)510-0412

e-메일 edit@jnilbo.com

전일 게시판

본란은 애독자를 위한 무료서비스란입니다. (보낼곳)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전남일보 5층

▽인생2막 정보 공유 모임 = 60대 이상 스마 트폰 기초부터 영상편집까지 배우기 등 성공적 인생2막을 위한 정보 나누기. 매주 수요일 오전 9시30분~12시, 금남로 1가 예정 (010) 2626-5018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 력, 성폭력 등 국번 없이 1366

▼조수덕씨 별세, 김용득(전 득량중 교장)· ュ 봉득(전 신안군청 과장)·호림((사)꿈과도전

이사장)·수자·명자씨 모친상, 이미란(교육청)·이윤희(비금면 보건소 행정실장)·오경미(동구청소년문화의집 관장)씨 시모 상, 박연수·김동오(오텍 캐리어)씨 장모상 = 발인 23일(금) 오 전 8시30분, 국빈장례문화원 203호 (062)606-4000



국민연금공단 광주본부, 기업탐방・일경험 프로그램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는 광주지역 취업준비생 30여명을 초대해 '기업탐 방 일경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사진)

이번 프로그램은 국민연금 광주지역본부와 (사)인재육성아카데미, 지역 고용 정책연구원 등이 함께 지역 취업준비생에게 공공기관의 직무 경험과 직무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바람직한 진로 설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총 6시간 과정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공단의 직무소개와 고객센터에서 일하 는 모습 탐방, 청년세대가 알아야 할 소비와 지출 강의, 노후 준비를 위한 자가 진 단 등으로 구성됐으며 연금제도와 연금개혁을 주제로 본부장과의 질의응답 형식 의 토크콘서트도 마련됐다.

윤중선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은 "앞으로 우리 지역 청년들이 연금제도 와 본인의 인생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잘 설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한국산학협동연구원 산학협동포럼 성료 한 국 산 학 협 동 연 구 원 (kiuri·원장 차용훈)은 21

일 무등파크호텔 컨벤션A홀(4층)에서 회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42회 산 학협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광주경제고용진흥원의 서민경 책임으 로부터 사업설명회가 있었으며 이어 광주디자인진흥원 송진희 원장이 '디자인이 경쟁력이다'라는 주제로 강연해 큰 호응을 받았다. 한국산학협동연구원 제공



북구 주민들, 탄소중립그린마을만들기 광주 북구 설죽로가그린마을 로 연대한 용봉동, 삼각동, 매

곡동, 일곡동 주민들이 21일 북구 매곡동 일대에서 탄소중립그린마을만들기를 위한 실천행동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김양배 기자

